

FSS/2112-27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자산수증이익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2012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2.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기자동 제어장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11년 12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제공한 문방구어음 25억원을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다.

'12년 2월 회사의 실질사주 B는 회사 계좌에 25억원을 입금하여 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12년 3월 회계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회사 통장에서 27억원을 인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11년 대표이사가 회사에 제출한 문방구어음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 25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으로 자산 및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위의 거래를 통해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자산수증이익의 입금내역 확인 등 감사절차 수행사실과 감사의견(한정)을 감안하여 감사인 미지적

①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서는,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내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감사인은 '12년 3월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는 문방구어금 거래와 관련한 자금 출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거래를 부인하기 곤란하였으나, 거래의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음에 따라 관련 거래를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기재하였다. 감사보고서 발행 후 자산수증이익으로 입금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자산수증이익을 제거하여 '11년 재무제표를 수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12년 5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고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변경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관리종목 지정우려 등 회사의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산수증 거래 등 통상적이지 않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관련 자금거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하거나 감사의견에 반영하는 등 감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